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자전거 먼저 출발' 교통신호체계 도입	에든버러
사회·복지	3	'아동 성보호 인식 확산' 캠페인 진행	버밍엄
	5	장애인 고교생에 유급 고용기회 제공	빅토리아
환경·안전	7	분리수거 방법 개선 등으로 '쓰레기 무배출' 추진	바르셀로나
	10	재해 발생 시 임산부 등 피난약자에 충분한 지원	오사카
도시계획·주택	12	에어비앤비, 주택난 심화요인...해법 모색	뉴욕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자전거 먼저 출발’ 교통신호체계 도입

이용자 안전 포석...주요 대상지역은 트램 이동경로·교차로

영국 에든버러市 / 도시교통

- 영국 에든버러市는 도시 내 트램(tram)과 자전거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 중 하나로 신호대기 지역에서 다른 이동수단보다 자전거를 5초가량 먼저 출발시키는 ‘자전거 먼저 출발’ (Early Release Signal for Cyclists) 교통신호체계를 트램 이동경로와 교차로를 위주로 도입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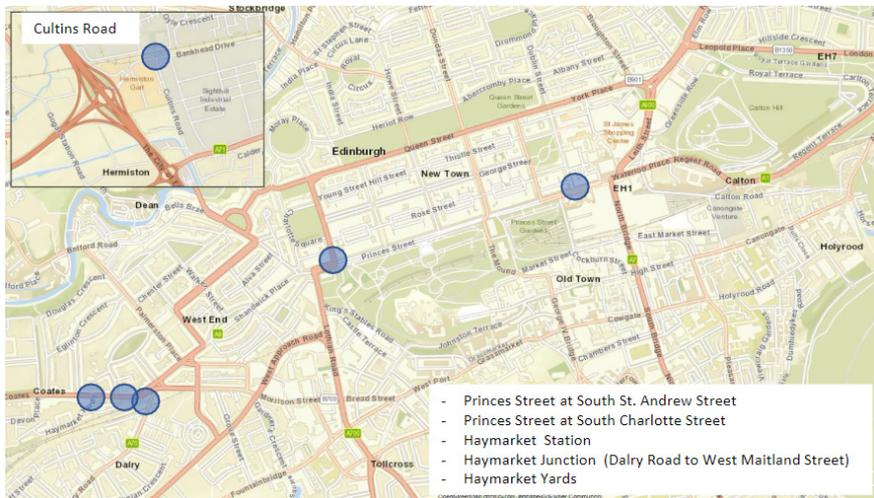
- 시의회는 2017년 중반 트램과 자전거 간의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고, ‘트램 이동 경로 주변 자전거 안전 향상 계획’(Tram Cycle Safety Improvement)을 추진
- 2018년 4월까지 계획의 1~2단계를 완료해 시민의 자전거 안전의식을 도모하고 트램 이동경로 주변에 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확보
 - 1단계: 2017년 가을 주요지역에 붉은색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 2단계: 도로 위의 트램 이동경로 중 5곳에 ‘선행 자전거 정지선’(Advanced Stop Line: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차량보다 앞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
 - 3단계: 6개 주요 구간에 ‘자전거 먼저 출발’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할 계획

- 주요 내용

- 다른 이동수단보다 자전거를 먼저 출발시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교통신호체계
 - 신호등에 자전거 전용 신호를 추가하고, 다른 이동수단보다 먼저 3초간의 녹색신호와 2초간의 황색신호를 주어 총 5초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함
 - 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먼저 빠져나가도록 해 다른 차량이나 트램과의 충돌 가능성을 낮춤
 - 런던(London), 요크(York) 등 영국 내 다른 주요도시에 먼저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시스템
- 도시 내 트램 이동경로와 교차로를 주요 대상지역으로 삼아 설치
 - 시정부가 선정한 6개 주요구역을 위주로 2018년 말까지 다수의 ‘자전거 먼저 출발’ 교통신호체계를 도입



[그림 1] '자전거 먼저 출발' 교통신호체계



[그림 2] 시정부가 선정한 6개 주요구간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455/new_early_release_signals_for_cyclists_planned_for_tram_route

<https://www.gov.uk/government/case-studies/early-release-for-cyclists-at-traffic-signals-micklegate-york>

<https://consultationhub.edinburgh.gov.uk/sfc/tram-route-cycle-safety-improvements>

<http://nen.press/2018/03/15/early-release-traffic-signals-for-cyclists-proposed>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사회·복지

‘아동 성보호 인식 확산’ 캠페인 진행

영국 버밍엄시 / 사회·복지

- 전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 확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영국 버밍엄시는 아동 성착취(CSE: Child Sexual Exploitation)를 방지하는 단체 ‘NGW Network’와 함께 어린이를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SNS로 나누는 ‘아동 성보호 인식의 날’ 캠페인을 지난 3월 18일 진행

- 개요

- 아동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 ‘NGW Network’에서 3월 18일을 ‘아동 성보호 인식의 날’로 정해 SNS 캠페인을 시행
 - 버밍엄시와 웨스트미들랜드 지역 6개 도시가 함께 참여
 - 기존에 진행 중인 청소년 성범죄 예방 운동인 ‘See Me, Hear Me’ 캠페인과 연계
- 시민이 아동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방법을 고민하며, 아동 성착취에 반대하고 아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독려
- ‘STOP CSE’ 홈페이지에서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NGW Network는 아동 성착취를 “아동 성학대(Sexual Abuse)의 하나로, 18세 이하 어린이를 강압이나 조작으로 성적 행위에 끌어들이는 것이며, 돈, 선물, 숙소, 애정, 지위 등을 대가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설명
 - 그 외에도 실제 피해 사례, 위험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 대응 가이드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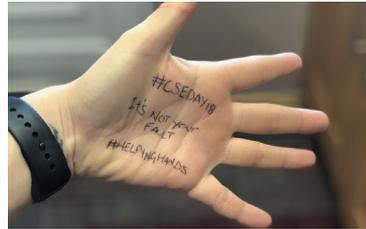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캠페인 담당자가 먼저 시민을 상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맹세하도록 설명
-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하는 시민은 자신의 손바닥에 아동 성보호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간단하게 적고, 사진을 찍어 트위터(Twitter)등 SNS에 올림

- 맹세의 손바닥 사진이 담긴 포스트에는 #HelpingHands, #CSEDay18, #StopCSE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



[그림 1] '아동 성보호 인식의 날' 캠페인 이미지



[그림 2] 참여자의 손바닥 맹세 이미지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48/make_a_pledge_and_support_national_child_sexual_exploitation_awareness_day

<http://www.stop-cse.org>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장애인 고교생에 유급 고용기회 제공

호주 빅토리아주 / 사회·복지

- 호주 빅토리아주는 장애인의 학창시절 고용경험이 성인기의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인 고교생에게 지역사회나 학교 내에서 유급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승차권’(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도입

- 배경
 - 청년기나 이른 성인기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장애인은 오랫동안 혹은 평생에 걸쳐 고용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장애인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 조기 학업중단율이 2배 이상
 - 비장애인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대지만, 중증 장애인 학생은 약 27%, 경증 장애인 학생은 약 22%의 학업중단율을 기록
 - 흥미로운 점은 비장애인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대부분 ‘취업’이지만, 장애인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에서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6%
 - 고교 졸업장 없이 학업을 중단하면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 쉬움
 -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용기회 상실을 경험하는 장애인 학생
 - 15~24세 연령대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장애인 학생의 비율은 56%지만, 장애인 학생은 그 비율이 38%로 저조
 - 특히 견습(Apprenticeship) 과정에 있는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2.8%에 불과
 - 호주는 전기나 배관 등 기술직이 되기 위해서는 견습과정을 거쳐야만 함
 - 장애인 학생의 유급 고용경험은 졸업 후의 고용에 많은 긍정적 영향
 - 학창시절에 유급 고용을 경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 학생에 견줘 졸업 이후 지속적인 고용상태와 긍정적 고용경력(Career Trajectory)을 유지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음
 - 학창시절의 고용경험이 졸업 이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장애인 학생보다 장애인 학생에게 훨씬 큰 것으로 조사
 - 고용경험이 있는 장애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확률이 50% 이상 높음
 - 그러나 장애인 학생 중 학교에서 고용 관련 정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요

- 2014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 ‘일자리 승차권 네트워크’가 위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학생에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부로 포함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략보고서 ‘장애인에게 모든 기회를’을 발표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6%, 2025년까지 12% 달성
 - 장애인 학생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승차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함

- 주요 내용

- 장애인 학생에게 고용촉진 교육과 고용기회를 제공
 - 학교 기반의 견습제도(School-based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를 운영해 장애인 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지원
 - 장애인 학생이 현실의 고용세계에 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고용을 촉진
- 신청 자격은 교육부가 장애인으로 승인한 고등학생에 있으며, 학교와 함께 신청
 - 신청 학생은 확고한 고용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함
- 장애인 학생, 가족, 학교, 고용 알선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고용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구성
 - 학교는 장애인 학생에게 고용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담당
 -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달하는 역할
 - 고용주는 장애인 학생에게 실습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
- ‘일자리 승차권’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재원은 주정부, 구단위 지방정부, 자선재단 기부금 등으로 충당

<https://www.premier.vic.gov.au/giving-students-with-a-disability-a-fair-go-to-find-work>

<http://www.tickettowork.org.au>

<http://www.statedisabilityplan.vic.gov.au/every-opportunity>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환경·안전

분리수거 방법 개선 등으로 ‘쓰레기 무배출’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환경·안전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쓰레기 무배출’(Residuo Cero: Zero Waste)을 목표로 장난감 재사용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소형 가전제품 수리 워크숍, 음식물 쓰레기 자체 퇴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리아(Sarrià) 지역에 개선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시범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거둠

- 개요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쓰레기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해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
- 현재는 ‘레지두오 세로’(Residuo Cero)라는 ‘쓰레기 무배출’ 정책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통합한 환경 정책을 추구
-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4R을 강조
 - Repensar(Rethink):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 Reducir(Reduce): 소비습관 개선으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 Reutilizar(Reuse): 다 쓴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해 재사용
 - Reciclar(Recycle): 수명을 다한 물건은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 바르셀로나시정부, 카탈루냐주정부, 카탈루냐 폐기물협회, 시민-환경단체 조직 레제로(Rezero) 등이 협력

- 주요 내용

- 주요 목적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저감해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
 -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고 생산시스템을 개선해 혁신적인 순환경제를 추구
 - 쓰레기의 배출 최소화를 습관화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의 장려
 - 쓰레기 분리수거와 폐기물의 수리·재사용 강화
 - 낭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예방하는 제품 관리시스템과 모델을 구현

-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비용, 사회·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교류를 확산
- 새로운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경제 단체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 양적 목표
 - 1인당 일간 쓰레기 배출량을 1.2Kg 이하로 줄임
 - 도시 폐기물의 재활용 수준을 60%까지 향상
 - 유기물 분리수거 시 부적절한 쓰레기의 포함 비율을 최대 8%까지 감소
- 쓰레기 줄이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 안 쓰는 물건을 상호교환하는 프로그램 ‘옷 재활용’(Renueva tu ropa)과 ‘장난감 재활용’(Renueva tus juguetes)을 추진
 -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등의 수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토스터, 블렌더 등 소형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워크숍 진행
 - 책임감 있는 소비를 장려하는 다양한 캠페인 시행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자체 퇴비화, 재활용이 가능한 책을 모아놓은 공간 마련,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그림 1] 장난감 재활용 상호교환 프로그램



[그림 2] 소형 가전제품 수리 워크숍

- 분리수거 정책 개선

- 사리아 지역의 주민협회는 지역·환경단체들과 함께 시정부에 ‘쓰레기 무배출’ 정책과 ‘기후변화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개선된 분리수거 정책을 제안
 - 주민들은 사리아 지역이 개선된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에 높은 만족도와 자긍심을 보임
 - 2017년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분리수거 시스템의 홍보와 준비를 시작
 - 2018년 2월 19일부터 새로운 분리수거 시스템인 ‘쓰레기 집 앞 수거’를 시범 시행
- 첫 한 달 동안의 시범 시행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량이 기존보다 19% 증가
 - 일주일에 약 17,000Kg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 일주일간 분리수거된 유기물 7,500Kg의 불순물 함유율이 0.86%에 불과
 - 처음 2주 동안은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향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쓰레기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
- 각 가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집 앞에 내어 놓으면 수거하는 방식
 - 유기물, 재활용품(플라스틱과 금속), 유리 용기, 종이와 박스, 재활용 불가 품목(담배꽂초, 면, 펜 등), 위생 쓰레기(기저귀, 동물 배설물 등)로 분류
- 쓰레기 집 앞 수거 시스템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민의 참여와 습관 형성이 중요
 - 정해진 시일 외에 쓰레기 수거가 필요할 때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
 - 분리수거통에 식별칩을 내장해 시일에 맞지 않게 내어놓은 쓰레기통에는 ‘쓰레기통을 잘못 놓았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
 - 상점가에는 별도의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수거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residuo-cero>

<http://ajuntament.barcelona.cat/lafabricadelsol/es/content/generacion-y-prevencion-de-residuos-en-barcelona>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sites/default/files/guia_informativa_porta_porta.pdf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residuo-cero/recogida-selectiva/puerta-a-puerta>

<http://www.fortpienc.org/2017/09/14/renova-teves-joguines>

http://lameva.barcelona.cat/barcelonasostenible/sites/default/files/presentacio_compostatge_2017-2018.pdf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재해 발생 시 임산부 등 피난약자에 충분한 지원

일본 오사카市 / 환경·안전

- 일본 오사카市는 재해 발생에 따른 피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환자, 외국인 등의 피난약자가 더 쉽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재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피난 지원계획’(大阪市避難行動要支援者避難支援計画)을 시행 중

- 배경
 -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흡해 여러 문제가 발생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안전 확인에 시간이 소요
 - 대피소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음
 - 시각·청각 장애인과 외국인은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
 - 피난약자의 피난 생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2009년 11월 ‘재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피난 지원계획’을 수립
 - 재해 발생과 피난 상황 시 피난약자 지원방안의 기본적 방향성을 정립
 - 정부의 관련 지침 개선에 따라 오사카시도 2014년 해당 계획을 전체적으로 개정

- 주요 내용
 - 오사카시의 지원계획에서 정의하는 피난약자
 -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아동, 환자, 외국인 중에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신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이동이 어려운 사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사람, 약이나 의료 장치가 지속해서 필요한 사람, 정신적으로 현저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 외국인 등 언어·문화·생활습관상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 피난약자가 평상시 스스로 준비해야 할 사항
 - 스마트폰, 텔레비전, 라디오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 획득 기기를 준비

- 평소 주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고 방재훈련과 지역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상황을 이웃에게 알림
- 쉽게 넘어지는 가구를 고정하는 등 미리 주거지 내부의 안전을 확보
- 자신에게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생활용품 등을 적어도 1주일분은 확보
- 일본어에 서툰 외국인은 미리 방재 정보를 습득
- 거주 지역의 대피소나 대피 경로를 미리 파악
- 오사카시가 평상시 대비해야 할 사항
 - 피난약자의 정보와 재해 발생 시 사용할 시설의 파악, 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가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
 -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비축하고 주요 기업과의 연계체제 구축
 - 사회복지 시설, 간병 사업자 등과 연계해 종합상담 시스템 및 재택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
 - 일본어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하고 평상시에 방재교육을 시행
- 재해 발생 시 오사카시가 해야 할 사항
 - 재해·피난 정보의 제공
 - 재해 발생 시의 초기 대응과 지원방법
 - 안부 확인, 구출 및 구호, 피난 유도의 시행
 - 재해 발생 시 피난약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피해 상황을 파악
 - 재해 발생 후 피난약자의 일상생활을 지원
 - 피난약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해 발생 후의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
 - 피난약자를 고려한 식단과 생활용품 제공, 응급가설 주택 구축 등
 -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해·피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재해 후의 피난 생활을 지원

<http://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058401.html>

<http://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cmsfiles/contents/0000058/58401/1zentaikeikaku.pdf>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도시계획·주택

에어비앤비, 주택난 심화요인…해법 모색

미국 뉴욕市 / 도시계획·주택

- 미국 뉴욕市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호스트 1명당 집 1채’ 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해법을 모색 중

- 배경
 - 뉴욕시는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대단히 활발한 도시 중 하나
 - 2017년에는 5만 500명의 호스트가 6억 5,700만 달러(7,22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
 -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지역주민, 주택 관련기관, 시민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주택난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실정
 - 시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14년 9월~2017년 8월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데이터 8억 건을 수집·분석

- 주요 내용
 -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호스트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일 년 내내 대여하는 전문 ‘상업적 운영자’가 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업적 운영자는 뉴욕시 전체 호스트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뉴욕시 에어비앤비 전체 수익의 48%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
 - 나머지 80%의 정직한 호스트는 오직 전체 수익의 32%만을 차지
 - 5천 명의 상업적 호스트가 3억 1,800만 달러(3,48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데 비해, 4만 400명의 정직한 호스트는 2억 900만 달러(2,299억 원)의 수익을 올림
 - 에어비앤비가 장기 주택임대 시장에서 약 5,600개의 주택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
 - 에어비앤비로 얻는 이익이 장기임대로 얻는 이익보다 많기 때문

- 또한,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평균 1년 치 임대료를 3년 전에 견줘 1.4%(380달러 (42만 원)) 올리는 결과를 초래
 - 맨해튼 일부 지역에서는 700달러(75만 원) 이상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올랐다는 보고
- 뉴욕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가능한 3가지의 방안을 제시
 -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1명당 집 1채’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
 - 비현실적인 뉴욕시 다세대 주택의 단기임대 법규를 현실에 맞게 완화
 - 일 년 내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주거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연간 에어비앤비 대여 일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채택

<https://www.citylab.com/equity/2018/03/what-airbnb-did-to-new-york-city/552749>

<https://mcgill.ca/newsroom/files/newsroom/channels/attach/airbnb-report.pdf>

https://2sqy5r1jf93u30kwzc1smfqt-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8/01/One-Host-One-Home_-_January-2018-Update.pdf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알려드립니다

- 지난 427호에 게재된 미국 뉴욕시의 ‘시민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정책적 대응 강화’ 원고 중 8쪽 2번째 문단의 “미국에서 총기사고와 강력범죄가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이라는 문장은 해외통신원이 취득한 정보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주관적 견해를 포함해 작성한 문장입니다.
- ‘ThriveNYC’ 프로젝트 측에서는 “ThriveNYC는 정신건강 이슈가 총기사고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20% 가까운 뉴욕시민이 스스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지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만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국가보장 의료보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강관련 이슈는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과 가족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